

# 플라톤에서 ‘자기 서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성훈\*

## 【요약】

1954년 블라스토스가 ‘자기 서술’이라는 표현을 도입한 이래 플라톤에서 자기 서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는 대개 플라톤이 서술 일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로 형상의 자기 서술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플라톤이 명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름’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특히 플라톤에서 주어 자리만이 아니라 술어 자리에 오는 형용사도 이름이라는 사실의 함축은 거의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플라톤의 자기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름은 지시적 기능에 더불어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플라톤의 서술 이론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면 플라톤에서 자기 서술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진술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플라톤, 자기 서술, 술어 없는 서술 이론, 형용사 이름, 정체성 진술

---

\*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https://doi.org/10.34162/hefins.2023..30.001>

## I. 들어가는 말

‘자기 서술Self-Predication의 문제’는 20세기 중반 이후 플라톤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문제 중 하나이다. 1954년에 Gregory Vlastos는 『파르메니데스』 편에 등장하는 무한 퇴행 논증에 “모든 형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 서술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가정을 ‘자기 서술 가정Self-Predication Assumption’이라고 불렀다.<sup>1)</sup> ‘자기 서술’이라는 표현은 이때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블라스토스의 이 주장을 시발점으로 이후 수많은 관련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 흔히 ‘제3인 논증’이라고 불리는 『파르메니데스』 편에 등장하는 무한 퇴행 논증<sup>2)</sup>을 정확히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구성에 따라 이 논증이 정말로 자기 서술 가정을 필요로 하는지 등의 문제가 당연하게도 후속 논의들에서 다루어졌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플라톤에서 자기 서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파르메니데스』 편에 등장하는 무한 퇴행 논증이 자기 서술 가정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별개로, 플라톤의 대화편들에는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자기 서술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형상의 자기 서술이란 그 자체로 문젯거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 편에 등장하는 큼의 형상에 대해 자기 서술이 이루어진다면, “큼 자체가 크다”는 이야기가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큼 자체가 크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것일까? 큼 자체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이런

---

1) Vlastos (1965(1954)), pp. 236-237.

2) 이 논증이 흔히 ‘제3인 논증’이라고 불리지만, 『파르메니데스』 132a-133a에 등장하는 실제 논증은 큼의 형상과 관련한 무한 퇴행 논증이다. 큼의 형상과 관련한 무한 퇴행 논증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한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일군의 철학자들로부터 유래한) 제3인 논증을 구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지만,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질문들에 앞서서, 도대체 큼 자체에 대해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주 착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크다'나 '작다'라는 술어를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일상적인 사물들, 플라톤의 용어를 빌리자면 큼의 형상이나 작음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들이지, 큼의 형상이나 작음의 형상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 '자기 서술'이라는 표현이 학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도, 플라톤의 형상이 자기 자신의 속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A. E. Taylor는 바로 『파르메니데스』편의 무한 퇴행 논증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런 지적을 한 바 있다. 다만 테일러는, 『파르메니데스』편에 등장하는 젊은 시절의 소크라테스가 동일성의 'is'와 서술적인 'is'를 구별하지 못해서 파르메니데스의 무한 퇴행 논증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뿐이며, 저자인 플라톤은 『소피스트』편에서 동일성의 'is'와 서술적 'is'를 구별하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3)</sup> 테일러의 이러한 주장으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그는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에 등장하는 형상의 자기 서술이 실제로는 동일성 진술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블라스토스가 1954년 논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바는, 적어도 테일러식의 단순한 해결책만으로는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등장하는 자기 서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파르메니데스』편이 플라톤 자신의 '당혹스러움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라고 주장하며,<sup>4)</sup> 이후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때의 '당혹스러움'을 플라톤 자신의 것으로 보든, 아니면 플라톤이 아니라 단순히 블라스토스의 것으로 보든, 그 당혹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제시된 제안들이 워낙 다양하기

3) Taylor (1916), pp. 253-255. 필자는 『소피스트』편에서 동일성의 'is'와 서술적 'is'가 구별된다는 테일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Vlastos (1965(1954)), pp. 250-255.

에 이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한 편의 논문이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부족할 것이다.<sup>5)</sup>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안들 대부분은 플라톤이 서술 일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형상의 자기 서술 문제만을 검토하는 것이었다.<sup>6)</sup> 하지만,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에 대한 철학적 반성) 때문에 은연중에 가지게 된 직관들을 플라톤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접근 방법은 애초부터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겠다. 언어에 기반한 편견은 체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술 일반에 관한 플라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형상의 자기 서술’과 같은 특정 문제만을 고찰하려 한다면, 편견을 극복할 가능성은 훨씬 더 희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어와 우리말, 그리고 영어와 같은 현대의 서구어 사이의 차이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를 추정해볼 것이다. 언어에 기반한 체계적 편견을 극복하고 나면, 희망컨대, 형상의 자기 서술이라는 것이 분명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F는 F다’라는 형태의 문장을, 이런 문장을 어떤 뜻으로 이해할지와 상관없이, 모두 자기 서술 문장으로 간주할 것임을 밝힌다. 블라스토스가 애초에 ‘자기 서술’이라는 표현을 도입했을 때 그는 이 표현을 F라는 형상이 F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은

5) Malcolm (1991)과 Apolloni (2011)은 각기 이 문제를 주제적으로 다룬 단행본들이다. 말콤은 플라톤에게 해결책이 없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에, 역설적으로 그의 책은 기존의 해결책들을 조망하는 팬츠은 소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6)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외로 Allen (1965(1960))과 Meinwald (1992)가 있으며, 알렌과 마인월드의 해석을 결합했다고 할 수 있는 (주 5에서 언급한) 아폴로니의 해석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알렌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검토할 것이다. 마인월드는 우리가 뒤에서 언급할 Frede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일반화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마인월드나 아폴로니의 해석에 대한 논의는 생략할 것이다.

형상 F에 대해 “F는 F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형상 F가 F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문장을 ‘자기 서술’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후대의 관행을 따를 것이다.

## II.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이름

서술과 관련한 플라톤의 생각 전반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한국어 사용자가 부딪히는 첫 걸림돌은 우리말의 형용사는 명사적인 성격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스어나 영어와 같은 인도-유럽어족의 언어들에서는 명사와 형용사가 문법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가지며 동사는 이와 전혀 다른 문법적 기능을 갖는다. 이에 비해 우리말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문법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명사는 이와 전혀 다른 문법적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사용자가 플라톤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는데,<sup>7)</sup> 자기 서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자체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는 한국어로 철학적 작업을 할 때도 은연중에 일단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어를 외국어의 번역인 것처럼 생각하고 읽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 한국어에서는 자기 서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 서술’이란 주어와 술어가 같은 서술을 의미하니, 우리말에서는 “산은 산이다”나 “사람은 사람이다”와 같은 문장이 자기 서술의 예가 된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어와 같은 인도-유럽 어족의 언어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문장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영어에는 관사와 단-복수 구별이 있어서 약간 복잡해지는 점이 있으나, “A mountain

7) 강성훈 (2012), pp. 100-104에서 필자는 한국어와 고대 그리스어에서 명사와 형용사의 문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is a mountain”이나 “Mountains are mountains”, 혹은 “The mountain is a mountain”이라는 문장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sup>8)</sup>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가지고 자기 서술이 이루어질 때이다. 특별한 논의 맥락 없이 “The beautiful is beautiful”이라는 문장을 접하면 이 문장은 아름다움이라는 추상 개념이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뜻으로 이해될 테고,<sup>9)</sup> 이것은 범주착오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아름답다”라는 우리말 문장도 분명 범주착오로 보이지만, 이 문장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 서술이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명사를 위주로 자기 서술 문장을 만들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다”라는 문장이 되고,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를 위주로 자기 서술 문장을 만들면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될 텐데, 어느 쪽이든 우리말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자기 서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주어 자리에서는 명사 역할을 하면서 술어 자리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자기 서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플라톤을 읽을 때 다소 당혹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플라톤이 자기 서술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영어 사용자가 (플라톤 철학을 논의하는 맥락 외의 자리에서) “The beautiful is beautiful”과 같은 문장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형용사를 주어에서는 명사처럼 사용하고 술어에서는 형용사로 사용하는 일은 영어에서도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이런 문장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to kalon esti kalon”이라는 문장에서 ‘kalon’이 주어에서는 명사로 사용되고 술어에서는 형용사로 사용된다고

8) 마지막 문장에서 ‘the’를 ‘추상 실체로 만드는 정관사(a hypostatizing definite article)’로 보면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cf. Geach (1965(1956)), pp. 269-271; Meinwald (1992), pp. 386-387. 하지만 소위 ‘철학 물을 먹은’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이 문장을 보고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9) ‘아름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the beautifu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수형 동사가 아니라 복수형 동사가 뒤따를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플라톤은 주어 자리에 오는 이름 *onoma*과 술어 자리에 오는 이름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고대 그리스어에는 문법 용어로서 '명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소피스트』 262a에서 플라톤이 *onoma*와 *rhēma*를 구별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법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이야기된 것', 혹은 '구절'을 의미하는 '*rhēma*'가 '(술어)동사'라는 문법 용어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sup>10)</sup>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것으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주어 가 될 수 있는 것이 '*onoma*(이름)'라고 불리게 된다. 물론 '이름'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고유명사를 떠올리게 되며, 이러한 사정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름의 올바름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있는 『크라틸로스』에서도 논의의 초반에는 고유명사들, 특히 신들의 이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는 고유명사가 아닌 이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408d 이하), 이 부분의 논의에서는 명사와 형용사가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논의된다.<sup>11)</sup> 플라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스토아

10) 『크라틸로스』 425a에서도 *onoma*와 *rhēma*의 구분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rhēma*가 (술어)동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단순히 술어의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론』 2장과 3장에서 *onoma*와 *rhēma*가 구별될 때는 *rhēma*가 (술어)동사의 의미라기보다 술어의 의미로 사용된다. 김진성 (2005), p. 126, n. 37은 『명제론』 3장에서 *rhēma*가 우리말의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한다는 이유로 '용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rhēma*가 우리말의 형용사를 포함한다는 김진성의 지적은 그 자체로는 적절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말의 형용사와 인도유럽어의 형용사가 성격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스어에서 형용사는 그 자체로 *rhēma*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einai + 형용사'의 형태로 *rhēma*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서는 Whitaker (1996), pp. 35-70을 참조할 수 있으며, 필자도 다른 기회에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1) 『크라틸로스』 411-413에서는 명사인 'phronēsis', 'epistēmē', 'sophia', 'dikaiosunē' 등과 형용사인 'agathon', 'dikaion' 등이 함께 논의되며, 416-420에서는 'kalon', 'aiskhron', 'sumpheron', 'lusiteloun', 'blaberon', 'hekousion' 등의 형용사가 'hēdonē', 'epithumia', 'anagke' 등의 명사와 함께 논의된다. (417에서는 여러 단어들을 묶어서 논의하는 와중에 명사와 형용사 만이 아니라

학파에 이르면 단어의 품사 구분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바빌로니아의 디오게네스는 (크뤼시포스를 따라) 다섯 개의 품사 구분을 하면서, *onoma*는 고유명사만을 지칭하는 품사로 두고 명사와 형용사를 아우르는 것으로 *prosēgoria*(호칭어)라는 품사를 도입한다.<sup>12)</sup> 하지만 이후 고대 그리스 문법학의 체계를 잡게 되는 디오닉시오스 트락스는 여덟 개의 품사 구분을 하면서 *prosēgoria*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onoma*에 포함시킨다.<sup>13)</sup> 요컨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유한 이름과 공통된 이름을 서로 구별되는 문법적 범주로 간주하기도 했지만, 명사와 형용사를 서로 구별되는 문법적 범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명사와 형용사를 구별하지 않는 언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현대의 독자들은 양자가 모두 이름이라는 사실의 함축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동사적 형용사를 가진 우리말은 물론이거니와 명사적 형용사를 가진 언어 중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들에서는 형용사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름으로 기능할 수 있다.<sup>14)</sup> 영어의 경우, ‘the beautiful’이나 ‘the good’처럼 정관사를 앞에 붙여서 추상적 존재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형용사가 이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일 것이다. 우리의 논의와

---

동사의 부정형이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 12) D.L. 7.57-58. 디오게네스가 구별하는 다섯 품사는 *onoma*(이름), *prosēgoria*(호칭어), *rhēma*(동사), *sundesmos*(연결사), *arthron*(관사)이다. D.L. 7.58에서 *prosēgoria*의 예로 제시되는 것은 명사인 ‘anthropos’와 ‘hippos’ 뿐이지만,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의 부분(*meros logou sēmainon koinēn poiōtēta*)’이라는 설명을 보면 이 범주에 형용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 13) 디오닉시오스 트락스의 여덟 품사는 *onoma*(이름), *rhēma*(동사), *metokhe*(분사), *arthron*(관사), *antōnumia*(대명사), *prothesis*(전치사), *epirrēma*(부사), *sundesmos*(연결사)이다. Bekker (1816), p. 634 이하.
- 14) ‘동사적 형용사*verby adjective*’나 ‘명사적 형용사*nouny adjective*’라는 표현은 언어학자인 Wetzter (1992)에서 빌린 것이다. 웨터는 형용사를 독립적 품사로 가진 언어들에서도 형용사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문법적 범주라기보다 (동사적 형용사를 가진 언어인지 명사적 형용사를 가진 언어인지에 따라) 동사나 명사의 하위 범주라는 제안을 한다. 웨터에 반대해서 형용사가 그 자체로 충분히 독립적인 문법적 범주라는 주장으로는 Bhat (1994), pp. 245-259, 특히 pp. 258-259를 참조할 수 있다.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영어에서 형용사가 술어로 사용되는 경우 형용사가 이름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the beautiful’이나 ‘the good’ 등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형상들의 이름이다. 그러다 보니 형상의 자기 서술에 대해 논의하는 영어권 연구자들 대부분은 플라톤에서 형용사가 이름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플라톤이 술어 자리에 오는 형용사도 이름으로 생각했을 것임에는 보통 주목하지 않는다. 형용사 술어가 주어라 지칭하는 대상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a는 F다” 혹은 기호로 “Fa”를 가장 기본적인 문장으로 생각하는 현대에는 일종의 철학적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식의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 2장에서 주어라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 ‘말해지는 것’과 주어라 지칭하는 대상 ‘안에 있는 것’을 구별하며, 거칠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구별인 대상과 속성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리스어에서 “A를 B라고 말하다legein”와 “A를 B라고 부르다kalein”와 “A를 B라고 이름 부르다onomazein”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동의어처럼 사용될 수 있다.<sup>16)</sup>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해지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구별하는 것들이 당대에는 모두 ‘이름onoma’으로 간주되었던 것임을 고려한다면,<sup>17)</sup> 아리스토텔레스는

15) 이와 관련한 탁월한 논의로 Mann (2000)을 참조할 수 있다.

16) 플라톤에서 이들이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예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프로타고라스』 311e4-5, 『파이돈』 103e9-104b1, 『소피스트』 256a10-b8 등을 보라. Eck (2008), pp. 113-114는 바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플라톤이 “x is F”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x를 ‘F’라고 부르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플라톤에서는 술어도 이름이라는 데에 주목하는 것인 셈인데, 유감스럽게도 에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내적 서술inside predication’이라는 다소 신비스러운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 그치고 만다.

17) 『범주론』 1장의 논의에서 시사되듯이, 어떤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에서 이름의 다양한 용법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술어 자리에 오는 이름 중에서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 말해짐으로써 진정한 이름의 역할을 하는 것(‘말해지는 것’)과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진정한 이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대상 안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만 이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안에 있는 것’)을 구분한 셈이다. 이러한 구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헌이라면, 역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철학자인 플라톤도 이러한 구별을 했다고 가정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주어 자리에 오는 이름과 술어 자리에 오는 이름, 그리고 명사 이름과 형용사 이름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헬레네가 아름답다”라는 문장을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헬레네가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냥 헬레네가 ‘beautiful’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상의 자기 서술 문장, 예컨대, “The beautiful is beautiful”이라는 문장도 아름다움의 형상이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아름다움의 형상이 beautiful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어째서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을 문젯거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명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름으로 간주하는 언어 체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특별한 형이상학적 전제를 승인하기 전에는, 자기 서술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형용사가 속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철학적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플라톤이 형용사 술어도 이름으로 보기 때문에 형상의 자기 서술을 문젯거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해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형용사 술어를 이름으로 본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또한, 형용사 술어를 이름으로 보면 자기 서술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술어일 때에는 자기 서술과 관련한 ‘철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둘 모두와

관련된 논의 거리가, 우리의 해석이 결국 자기 서술에 대한 동일성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보통 ‘이름’이라는 표현에서 고유명사를 떠올리게 되며, 술어 자리에 고유명사가 오는 문장으로는 동일성 문장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표준적인 동일성 해석은 형상의 자기 서술에 국한해서 술어 자리에 오는 표현이 형상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용사 술어가 일반적으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해석은 표준적인 동일성 해석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하지만 술어 자리에 이름이 오는 것이 전체 문장을 단순한 동일성 문장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해석은 형용사(나 명사)가 술어에 오는 문장이 모두 동일성 문장이 된다는 것일 테니 표준적인 동일성 해석보다도 훨씬 더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해석이 결국 동일성 해석이 되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흔히 동일성 해석으로 간주되면서도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석과 상당히 유사한 R. E. Allen의 해석을 먼저 살펴보자.

### III. 알렌의 ‘술어 없는 서술’

사실 플라톤의 1954년 논문이 등장하기 전의 전통적 해석은 “큰 것 자체는 크다”라는 문장을 “심미아스는 심미아스다”라는 문장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sup>18)</sup> 특별한 논의 맥락 없이 “심미아스는 심미아스

18) 여기에서 ‘전통적 해석’이란,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 문장을 승인했다는 것은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이 문장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관련한 해석 중에서 전통적 해석이라는 이야기이다.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해석들이 플라톤 이전에도 있었고(예컨대, Conford (1939), p. 90), 플라톤의 논의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기도 했다(예컨대, Sellars (1955), pp. 425-430). 형상의 자기 서술을 아예 부정하는 해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다른 기회에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라는 문장을 접하면 우리는 이 문장을 동일성 문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전통적 해석은 “큰 것 자체는 크다”라는 문장도 일종의 동일성 문장으로 보는 것이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테일러의 입장이 이런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블라스토스의 논문 이후에도 H. F. Cherniss를 필두로 여전히 동일성 해석을 통해서 블라스토스를 반박하는 연구자들이 있다.<sup>19)</sup> 알렌도 일종의 동일성 해석을 제시하며,<sup>20)</sup> 이후의 문헌들은 흔히 처니스와 알렌의 입장을 묶어서 동일성 해석으로 부른다.<sup>21)</sup> 그런데 알렌의 해석은 단순히 동일성 해석이라고 하기에는 미묘한 점이 있다.

알렌의 해석에서 핵심은 형상의 자기 서술이 동일성 진술이라는 데에 있다기보다 플라톤이 소위 ‘술어 없는 서술 이론(a theory of predication without predicates)’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특별한 논의 맥락 없이 “심미아스는 심미아스다”라는 문장을 접하면 이 문장을 동일성 문장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듯, 특별한 논의 맥락 없이 “심미아스는 크다”라는 문장을 접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문장을 심미아스가 큼이라는 속성을 가졌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마련이다. 애초에 자기 서술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유도 “큰 것 자체가 크다”라는 문장이 큼의 형상이 큼이라는 속성을 가졌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형상의 자기 서술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자기 서술된 형상이 자기 속성을 가졌다는 생각은 거부한다.<sup>22)</sup> 하지만 그들이 자기 서술 문장이 형상에 어떤 특수한 종류의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형용사 술어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의 철학적 상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적 경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알렌의 해석은 바로 이러한 경향에

19) Cherniss (1965(1957)), pp. 369-374.

20) Allen (1965(1960)).

21) 처니스와 알렌의 입장을 묶어서 동일성 해석으로 논의하는 예로는 Heinemann (1989), pp. 65-57이나 Rosenthal (2011), pp. 47-50 등이 있다.

22) 자기 서술된 형상이 자기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면서 이것을 옹호하는 해석도 없지는 않다. 예컨대, Clegg (1973), pp. 27-37.



의미에서) ‘aRf’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다. 이때 ‘a’가 지칭하는 것이 일반 사물일 경우, ‘aRf’에서 ‘R’은 닮음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a’가 지칭하는 것이 바로 F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개별자 f인 경우, ‘aRf’는 ‘fRf’로 치환될 수 있고 ‘R’은 동일성 관계를 나타낸다.

알렌이 표준 파운드와 갈색의 유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a is F”라는 문장을 반드시 “a가 F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 틀을 플라톤의 형이상학에 적용하면, F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개별자 f란 바로 F의 형상이 될 것이다.<sup>25)</sup> 그래서, 알렌의 해석에 따르면, “헬레네가 아름답다”는 문장은 “헬레네가 아름다움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 되며, “아름다움 자체가 아름답다”는 문장은 “아름다움 자체가 아름다움의 형상과 동일하다”는 뜻이 된다.

알렌은 자신의 입장을 동일성 해석으로 제시하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후의 연구자들도 알렌의 입장을 단순한 동일성 해석으로 소개한다. 하지만 ‘술어 없는 서술’, 혹은 속성을 상징하지 않는 서술이라는 그의 아이디어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알렌 자신도 가장 역점을 두고 설명하는 부분은, 일반 사물에 대한 서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해서 이해하려는 부분이다. 형상의 자기 서술을 동일성 진술로 분석하는 부분은 알렌의 해석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알렌은 ‘무게가 일 파운드다weighs a pound’라는 표현이 표준 파운드에 적용된다면 이것이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고 하지만, “표준 파운드는 무게가 일 파운드다The standard pound weighs a pound”라는 문장은 동일성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표준 파운드의 예는 사실

25) 이런 생각에서 드러나듯이, 알렌은 플라톤의 형상이 개별자라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형상이 보편자라는 통념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즉, 알렌은 플라톤의 형상이 보편자인 동시에 개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Allen, 1965(1960), pp. 52-59.). 플라톤의 형상이 보편자인지, 개별자인지, 보편자이면서 개별자인지, 보편자도 개별자도 아닌지의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P. T. Geach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것인데, 기치도 플라톤의 형상이 속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예를 사용하였다.<sup>26)</sup> 하지만 기치는 “표준 파운드는 무게가 일 파운드다”라는 문장을 동일성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무게가 일 파운드다’라는 표현이 형식적으로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으로) 무게를 재는 행위라는 것이 표준 파운드와 비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표준 파운드 자체는 일상적 의미에서 일 파운드의 무게를 가진다는 이야기를 아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27)</sup>

알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표준 파운드는 무게가 일 파운드다”라는 문장을 동일성 문장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문장은 그 자체로는 결코 동일성 문장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상은 갈색이다”라는 문장을 알렌이 분석했던 방식에 비추어서, “표준 파운드는 무게가 일 파운드다”라는 문장을 “표준 파운드는 무게가 일 파운드임을 규정해주는 바로 그것이다” 정도로 분석해준다면, 그래도 동일성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데 알렌은 왜 이 정도의 분석을 해줄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무게가 일 파운드다’라는 표현이 표준 파운드에 적용되면 이것이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identifying phrase*이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

26) Geach (1965(1956)), p. 267.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기치의 입장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기치는 영어에서 추상명사, 일반명사, ‘추상 실체화하는 정관사 (hyostatizing definite article)’ 등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런 사용에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것이, 플라톤이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Geach (1965(1956)), pp. 266-271. 기치는 형용사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지는 않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2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했던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27) Geach (1965(1956)), p. 267. 블라스토스는 표준 파운드가 무게가 일 파운드라고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기치의 논의를 비판하였고 (Vlastos (1965(1956))), pp. 283-286), 알렌 자신도 같은 이유로 기치의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한 바가 있다(Allen (1959), pp. 166-167). 알렌은 표준 파운드의 예를 사용하면서도, 이 예가 형상과 일반 사물의 존재론적 지위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유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Allen (1965(1960))), p. 47, n.1).

영어 단어 ‘identity’는 동일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정체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어쩌면 알렌은 ‘identifying phrase’라는 말로 은연중에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두 가지 뜻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무계가 일 파운드다’는 그 자체로는 표준 파운드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는 없지만, 표준 파운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알렌이 영어 단어 ‘identity’의 애매성 때문에 정말로 뭔가 혼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알렌은 ‘동일성 진술’이라는 의미의 표준적인 표현인 ‘identity statement’가 아니라 ‘정체 파악 진술’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 ‘identifying statement’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그가 형상의 자기 서술 문장이 동일성 진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서도, 여기에 단순한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그는 “F 자체는 F다”라는 문장이 형상 F가 F-사물들의 원인인면서 F-사물들의 본이 된다는 주장까지도 함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sup>28)</sup>

알렌의 입장을 동일성 해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어쨌거나 알렌의 해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동일성 해석이다. 우리가 알렌의 입장을 살펴본 것은, 술어 자리에 이름이 오는 것이 전체 문장을 동일성 문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의 해석과 비교적 유사한 해석을 살펴본 것이었다. 그리고 알렌의 해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동일성과 정체성이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이라는 것이 드러났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름과 동일성, 정체성 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28) Allen (1965(1960)), pp. 58-59.



#### IV. 동일성과 정체성, 그리고 이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논의 맥락 없이 “심미아스는 심미아스다”라는 문장을 접하면 우리는 이 문장을 동일성 문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산은 산이다”라는 문장은 어떨까? 현대 논리학은 고유명사와 일반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구분을 받아들인다면, “산은 산이다”라는 문장은 동일성 문장이 아니라 쌍조건문이 될 것이다. 학부의 논리학 수업 중간고사 정도에서 이 문장을 기호화하라는 문제를 만나면, “ $a = a$ ”가 아니라 “ $(x)(Fx \leftrightarrow Fx)$ ”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다. 하지만 논리학 수업의 맥락을 벗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은 산이다”와 같은 문장도 동일성 문장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문제는 ‘동일성 문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논의의 맥락에 따라, 주어와 술어가 동일한 개체를 지칭하는 경우에만 ‘동일성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한 때가 있고,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 사이에 동의어 관계가 성립할 때 ‘동일성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한 때가 있으며, 주어가 지시하는 것(들)이 술어가 지시하는 것(들)과 동일시되기만 하면 ‘동일성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한 때도 있을 것이다.

이름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크뤼시포스나 바빌로니아의 디오게네스처럼 이름 *onoma*과 호칭어 *prosēgoria*를 구분하여 고유명사만 ‘이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플라톤이나 디오뉴시오스 트락스처럼 고유명사와 일반명사, 형용사를 모두 ‘이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도 보통은 고유명사를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이름 붙이기의 맥락에서는 뭔가를 지시하기만 하면 모두 ‘이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천문학자가 새로운 항성을 발견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나 화학자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나 곤충학자가 새로운 곤충을 발견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 등이 모두 ‘이름 붙이기’라는 측면에서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름’이 꼭 고유명사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겠다.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색상의 이름을 도입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도 형용사에 대해서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sup>29)</sup>

고유명사만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름이란 지시적인 기능만 갖는다고 생각하기 쉽겠다. 하지만 보통명사나 형용사도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름이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Alexander Nehamas의 해석의 출발점이었다. 우선, 네하마스는 “a is F”라는 형태의 문장을 플라톤이 “a is what it is to be F”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그리고 그는 플라톤에서 이름 *onoma*이 그것이 이름하는 것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단순 서술문 중에서 오직 형상의 자기 서술만이 플라톤이 온전하게 승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1)</sup> 다시 말해서, “F itself is what it is to be F”라는 뜻으로 분석될 수 있는 “F itself is F”라는 형태의 문장만이 온전히 승인된다는 것이다. 네하마스는 자신의 해석에서 형상의 자기 서술이 단순히 동일성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네하마스가 보기에는, 동일성 문장이란 단순한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사태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문장을 동일성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sup>32)</sup> 하지만 네하마스의 해석도 결국

---

29) 물론, 신차에 붙여지는 색상의 이름들이 ‘녹턴그레이’니 ‘사이버그레이’니 하는 식으로 외래어를 차용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말에서는 형용사가 근본적으로 이름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30) Nehamas (1979), p. 95. “a is what it is to be F”라는 영어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a는, F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 바의 것이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31) Nehamas (1979), pp. 100-101.

32) Nehamas (1979), pp. 100-101. 참고로, 네하마스는 알렌의 동일성 해석을 비판하면서, 동일성 해석은 플라톤에서의 이름이 ‘단순히 지시적 기능만 갖는 고유명사이거나, 아니면 우연적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나’라는 이분법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Nehamas, (1979), p. 96, n. 14). 그런데 알렌의 예인 “표준 파운드는 무게가 일 파운드다”에서 ‘무게가 일 파운드’가 단순히 지시적 기능만 갖는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무게가 일 파운드’라는 것은 표준 파운드

일종의 동일성 해석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sup>33)</sup> 네하마스 자신도 자기 서술 문장이 정의적 동일성(definitional identity)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sup>34)</sup> 정체성에 기반한 그의 해석이 일종의 동일성 해석으로 간주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4장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주어가 지시하는 것과 술어가 지시하는 것이 동일시되기만 하면 ‘동일성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정의적 동일성이 성립하는 문장도 ‘동일성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정체성과 동일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데에, 네하마스의 해석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Michael Frede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프레데는 『소피스트』 255c14-15에서 이방 손님 이 “있는 것들 중에서(tōn ontōn) 어떤 것들은 항상 그 자체로(auta kath’ hauta) 말해지고 어떤 것들은 항상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pros ta alla) 말해진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플라톤이 ‘이다(einai)’의 두 용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어에 대해 술어가 ‘그 자체로’ 말해지는 경우 einai가 일차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말해지는 경우 einai가 이차적 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sup>35)</sup> 프레데에 따르면, “x가 y이다”라는 문장에서 ‘x’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 Y임(Y-heit)과 다르지 않을 때 einai가 일차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sup>36)</sup> 이 이야기만 보면 마치 프레데는 동일성 진술에서만 einai가

---

의 본성을 기술하는 표현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알렌의 해석과 네하마스의 해석에서 플라톤의 ‘이름’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지가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고 하겠다.

33) 예컨대, Malcolm (1991), pp. 73-88.

34) Nehamas (1979), pp. 95-96.

35) Frede (1967), pp. 12-36. 프레데는, 『소피스트』 255c14-15에서 이방 손님이 “있는 것들 중에서(tōn ontōn) 어떤 것들은 항상 그 자체로(auta kath’ hauta) 말해지고 어떤 것들은 항상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pros ta alla) 말해진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주어에 대해 술어가 ‘그 자체로’ 말해지는 경우에 einai가 일차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말해지는 경우 einai가 이차적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일차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프레데의 진의가 아니다. 관건은 “x’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 Y임과 다르지 않을 때”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겠다. 일단, (프레데의 구분에서 einai가 일차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형상의 자기 서술에 대해 프레데는 이것이 동일성 문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술어가 형상의 본질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sup>37)</sup> 이 이야기는 네하마스가 자기 서술을 본성 서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며,<sup>38)</sup> 프레데의 해석에서 자기 서술을 동일성 문장으로 볼지 아닐지는 네하마스 해석에서의 본성 서술을 동일성 문장으로 볼지 아닐지와 같은 문제가 되겠다. 더 중요한 것은, 프레데가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문장에서도 einai가 일차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프레데는 어떤 의미에서 종이 유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종 관계 서술에서도 einai가 일차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9)</sup>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유-종 관계가 동일성 관계는 아니지만 정체성 관계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다.

Benson Mates는 be 동사가 서술적 의미와 동일성의 의미를 가졌다는 철학적 통념에 반대하면서, 소위 ‘서술적 의미’와 ‘동일성의 의미’란 사실은

---

36) Frede (1967), pp. 30-31.

37) Frede (1967), p. 33.

38) 네하마스는 자기 서술 문장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프레데가 이야기하는 einai의 일차적 용법의 특수한 사례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Nehamas (1982), pp. 371-372, n. 41.

39) Frede (1967), pp. 33-34; (1992), p. 402. 프레데는 『파르메니데스』 146b3-5에서 “모든 것은 모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한다. 같은 것이거나, 다른 것이거나,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면 관계하는 것의 부분이거나 전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분과 전체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라면, 유와 종도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지 “A is B”가 참인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A is B and B is A”가 참인 경우나 “A is B but B is not A”가 참인 경우에 모두 “A is B”가 참인데, 전자의 경우에 A와 B가 동일하고 후자의 경우에 A에 대해 B가 서술될 따름이라는 것이다.<sup>40)</sup> 사실, 메이츠가 이런 논의를 하는 취지는 테일러나 처니스처럼 동일성의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플라톤을 구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The beautiful is beautiful”에서 ‘the beautiful’을 이 문장에서 아름답다고 이야기 되는 어떤 것의 이름으로 생각한 것이 플라톤의 결정적인 오류라고 주장한다.<sup>41)</sup> 필자는 이것이 오류라는 그의 진단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플라톤에서 *einai*의 동일성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진단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sup>42)</sup> ‘A’와 ‘B’가 모두 이름이고,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면, “A is B”는 “A가 B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다. 사람과 동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가 B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B도 A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A와 B가 같다”라는 동일성 진술이 성립할 때는 A가 B라는 정체성을 갖고 B도 A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 진술은 동일성 진술의 반쪽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때의 ‘동일성’은 단순한 동어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네하마스의 취지에 따라서) ‘본성적 동일성’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 정리하자면, 정체성 진술은 본성적 동일성 진술의 반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논의로 돌아가 보자. 반복해서

40) Mates (1979), pp. 216-220.

41) Mates (1979), pp. 220-225.

42) 메이츠는 “A is B”에서 B가 형용사인 경우를 특별히 검토하지 않으며, 영어에서 B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그의 분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어에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용사는 술어로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B가 형용사인 경우, “B is A”나 “B is not A” 등에 대해서 아예 참 거짓을 논의할 수 없겠다. 고대 그리스어처럼 형용사도 주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메이츠 식의 분석이 서술문 일반에 적용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름’이라는 말로 고유명사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고유명사는 지시적 기능만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크라틸로스』 편의 논의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플라톤은 (고유명사든 일반명사든 형용사든) 이름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만 부여받은 단순한 규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유명사를 포함한 모든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올바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sup>43)</sup> 고유명사가 단순히 지시적 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닌 용법이 사실 우리말에도 있다. 요즘에는 “손흥민이 손흥민했다”라는 새로 만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우리는 “손흥민은 (역시) 손흥민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 표현은 손흥민이 손흥민의 정체성을 잘 드러냈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용법은 고유명사 외에도 사용된다. 예컨대, 개에게서 개 이상의 정체성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개는 (그래보야) 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용법이 동일성 진술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진술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본래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존재의 정체성을 닮은 양상을 보일 때, “그 아이는 완전히 손흥민이던데”라든지 “너가 개냐?” 따위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손흥민’과 ‘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어와 술어가 같은 문장, 즉 자기 서술문이 단순한 동어반복에 불과한 동일성 문장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유를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말과 달리 그리스어에서는 형용사 이름과 명사 이름이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 ‘beautiful’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진정한 의미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아름다움의 형상밖에 없을 것이다. 『크라틸로스』 439d5-6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것 자체(he beautiful itself는 항상 그것이 그러한 바의 것으로 있다”고 이야기한다.<sup>44)</sup>

43) 『크라틸로스』 전체를 관통하는 생각이어서 특정한 구절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생각이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된 구절은 422c-d이다.

“The beautiful itself is beautiful”이라는 문장이 아름다움의 형상이 beautiful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뜻이라면, 이 문장은 바로 지금 인용한 『크라틸로스』의 문장을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되겠다.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결국 그 자체로 특정한 종류의 속성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속성의 집합으로 환원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오늘날의 철학자나 논리학자들은 술어는 모두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문장도 소크라테스가 ‘사람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곤 한다. 그런데 실체-속성 형이상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2장에서 언급한,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 ‘말해지는 것’과 그것의 ‘안에 있는 것’ 사이의 구별이 거칠게 말해서 실체와 속성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은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말해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에서 ‘사람이다’가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늘날 소위 ‘철학 물을 먹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 소크라테스가 ‘사람임’이라는 속성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척추를 가지고 있으며 호흡을 하며 두 발을 가지고 있다는 등 여러 함축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이러한 속성들<sup>45)</sup>로 환원

44) 자연스러운 우리말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원문은 “auto to kalon toiouton aei estin hoion estin”이고, 영어로 번역하자면 “The beautiful itself is always such as it is” 정도가 되겠다. 『크라틸로스』의 이 구절에서 ‘아름다운 것 자체(auto to kalon)’가 플라톤적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 논란에 대해서는 Baxter (1992), pp. 176-183이나 Barney (2001), pp. 148-16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는 이 구절의 ‘아름다운 것 자체’가 반드시 플라톤적 형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 『크라틸로스』의 맥락에서 이 구절이 플라톤적 형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플라톤이 아름다움의 형상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했으리라는 점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45) 사실, 이성을 가짐, 척추를 가짐, 호흡을 함 등을 사람의 속성들이라고 해야 하

된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체성 때문에 이러한 속성들을 가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정체성이 특정한 종류의 속성이거나 속성의 집합으로 환원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어쩌면 실제 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해 생각할 때 더 분명해질지도 모르겠다. 하양은 색이다. 하양은 색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하지만 하양이 ‘색임’이라는 속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상스럽다. 거꾸로, 하양이 ‘색임’이라는 속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스럽다고 해서 하양이 색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양은 하양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따르자면, 이 이야기는 하양이 하양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이다. 하양이 하양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양이 하양이라는 속성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플라톤이 하양의 형상을 승인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다.<sup>46)</sup> 어쨌거나 플라톤이 하양의 형상을 승인한다면, 그는 “The white itself is white”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하양 자체가 하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범주착오라는 생각이, 단적으로 말해서 형상의 자기 서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장이 하양 자체가 하양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며, 이런 해석에서는 이 문장이 특별한 문젯거리가

---

는지도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불필요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 5장, 3a20 이하에서 실제만이 아니라 종차diaphora도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 안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점 정도는 지적해두기로 하자.

- 46) 필자가 아는 한,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이러저러한 색의 형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누군가는 『메논』 76a-e를 근거로 플라톤이 이러저러한 색의 형상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 다른 누군가는 『국가』 596a, 『파르메니데스』 135b-c 등을 근거로 플라톤이 이러저러한 색의 형상들도 인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제 7서한』을 플라톤의 진작으로 본다면, 플라톤은 (도대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형상을 다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색의 형상도 인정하는 것이 된다(342d).



되지 않는다.

## V. 정체성의 유지와 따라부르는 이름

네하마스는 플라톤에서 진정한 이름은 형상들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47)</sup> 프레데는 주어에 형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오는 경우에만 einai가 일차적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한다.<sup>48)</sup> 그리고 이들은 플라톤에서 술어에 오는 형용사도 이름이라는 이야기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하마스의 본성 서술이나 프레데의 일차적 용법이란 것은, 적어도 형상의 자기 서술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정체성 진술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네하마스나 프레데 등과는 달리 우리는 형상의 자기 서술이, 적어도 언어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자기 서술의 특수한 사례일 따름이며, 술어 자리의 형용사도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 서술이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형상이 아닌 대상에 대한 자기 서술 문장이나 형상이 아닌 대상을 주어가 지칭할 때 형용사 술어가 오는 문장 등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sup>49)</sup>

우선,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자기 서술을 일반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파이돈』 100c4-6에서 “아름다운 것 자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오직 저 아름다운 것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구절은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을 인정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47) Nehamas (1979), p. 100.

48) Frede (1967), pp. 31-32.

49) 물론 “손흥민은 손흥민이다”는 형상이 아닌 대상에 대한 자기 서술의 예이고, 플라톤이 하양의 형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The white is white”은 주어가 형상이 아닌 경우 형용사 술어가 오는 자기 서술 문장이 되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설명이다.

보통 제시되는 것이다.<sup>50)</sup> 『파이돈』의 이 구절 이후에 이어지는 논의는 플라톤에서 형상의 자기 서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파이돈』 102c1-2에서 소크라테스는 “심미아스가 심미아스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보다 큰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침 가지고 있는 큼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102e3-5에서는 “나는 작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간직하면서도 여전히 나인 바 그대로 있고, 이 동일한 내가 작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구절들은 플라톤이 “심미아스는 심미아스다”나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다”와 같은 문장들이 정체성 진술로서 “The beautiful itself is beautiful”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sup>51)</sup>

『파이돈』의 해당 부분 논의는 또한 플라톤에서 형용사 술어를 갖는 문장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고유명사나 일반명사나 형용사가 모두 이름이라면, 심미아스는 ‘심미아스’라는 이름도 갖고 ‘사람’이라는 이름도 갖고 ‘tall’이라는 이름도 갖는다. ‘심미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동명이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미아스 뿐이겠지만,

---

50) 주석 18에서 이야기했듯이,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해석들도 있다. 그런 해석들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파이돈』의 이 구절과 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51) 『프로타고라스』 330c-331c에 등장하는 “정의가 정의로운 것이다”나 “경건 자체가 경건하다”라는 문장에서 ‘정의’와 ‘경건’이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면 (그리고 추상명사가 주어이고 해당 형용사가 술어인 문장도 자기 서술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형상의 자기 서술이 아니면서 사람 이름이 주어가 아닌 자기 서술이 있는 셈이 되겠다. Vlastos (1981(1972))는 저 문장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의롭다”와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다”는 뜻을 가지는 소위 ‘바울식 서술 (Pauline predication)’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블라스토스의 해석에 따르면 이 문장들에서 ‘정의’나 ‘경건’이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필자는 블라스토스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서 ‘정의’와 ‘경건’이 플라톤적 형상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강성훈 역 (2021), pp. 158-159). 하지만 이 문제는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우리의 해석에서는 ‘정의’나 ‘경건’이 형상을 가리키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 문장들은 정체성 진술이 되겠다.

‘사람’이나 ‘tall’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여럿이다. 바빌로니아의 디오게네스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름onomia과 호칭어prosegoria를 구별했고, 프레게 이후 현대의 논리학(과 그에 기반한 철학)도 이 기준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삼아서 고유명사와 개념, 혹은 집합을 구별한다. ‘사람’이라는 이름과 ‘tall’이라는 이름은 어떤가? 고대 그리스의 문법학자들은 양자를 구별하는 문법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대의 철학자들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에 대해 말해지는 것의 이름인가 실체 안에 있는 것의 이름인가 하는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하였다. 플라톤도 양자를 구별하는가? 구별한다면 그는 어떤 기준으로 그런 구별을 하는가?

오늘날의 비교 언어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형용사가 품사로 따로 있는 언어에서) 명사와 형용사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다.<sup>52)</sup> 그러다 보니 한 언어에서는 형용사로 표현된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명사로 표현될 수도 있다. 요컨대, 언어마다 명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sup>53)</sup> 그리고 비교 언어학자들이 보고하는 명사와 형용사의 구별 기준들 중에서 ‘실체 안에 있음’과 ‘실체에 대해 말해짐’과 같은 형이상학적 기준은 (당연히)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 작업이 고대 후기 이래로 서양에서 표준 교육커리큘럼에 포함되었고 이후 우리의 철학적 상식의 기반이 되었지만, 플라톤도 같은 기준으로 ‘사람’과 ‘tall’을 구별했으리라고 미리 가정할 이유는 없다.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짐작하기에 앞서, 오늘날의 비교 언어학자들은 ‘시간 지속 속에서의 안정성time-stability’을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은 언급해두기로 하자. ‘동사적 형용사’와 ‘명사적

52) 형용사가 품사로 따로 없는 언어의 예로 흔히 언급되는 것은 아즈텍 문명에서 사용되었던 Nahuatl어이다. Nahuatl어(와 Otomi어, Totonac어 등)에 정말로 형용사가 없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형용사가 있다거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Hansen (2011)을 참고할 수 있다.

53) 이와 관련해서 Bhat (1994), pp. 23-42나 Givón (2001), pp. 50-5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형용사'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Wetzzer는,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동사-형용사-명사가 구분된다는 Givón의 가설을 받아들여서, 각 언어가 어떤 개념이 지시하는 사태의 안정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비슷한 개념이 특정 언어에서 동사나 형용사, 혹은 명사로 달리 표현된다고 주장한다.<sup>54)</sup> 만약 플라톤이 안정성, 혹은 안정적인 정체성 유지를 기준으로 '사람'과 'tall'을 구분한다면, 오늘날의 언어학자들과 비슷한 기준으로 그가 명사적인 것과 형용사적인 것을 구분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하다.

일단, 안정적인 정체성 유지가 플라톤 철학에서 중추적인 기준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스어 'eidōs'나 'idea'라는 단어는 다의적이어서 플라톤적 형상을 나타내지 않는 말로도 곧잘 사용되는데, 애매한 요소 없이 플라톤적 형상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있는 것' to aci kata t'auta hōsautōs ekhon'이란 표현이다.<sup>55)</sup> 정체성 유지의 안정성은 바로 형상계와 감각세계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형상계가 아닌 영역에서도 (상대적) 안정성의 기준은 플라톤에서 중요하다. 『국가』 523c-524a에서 소크라테스는 손가락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 손가락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손가락이 상황에 따라 큰 것으로도 보이고 작은 것으로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예를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논의 맥락으로 가져와 보자.<sup>56)</sup> 예컨대, 새끼손가락은 무슨 큰

54) Wetzzer (1992), pp. 237-240; Givón (2001), pp. 53-54.

55) 『파이돈』 78d, 79d, 80b, 『국가』 479a, 484b, 『소피스트』 248a, 『티마이오스』 41d 등

56) 『국가』에서 손가락의 예가 논의되는 맥락은 (넓은 의미에서) 인식론적인데, 지금 우리의 논의는 (넓은 의미에서) 존재론적이기 때문에, 이 예를 우리의 논의에 가져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지면 관계상 이런 의문에 충분히 답할 수는 없다. 다만, 손가락 논의의 함축 중 하나가 '손가락의 형상'보다 '크기의 형상'을 사람들이 승인하기 더 쉽다는 것이라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플라톤은 형상의 존재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감각세계의 대상들 중에서 자체적으로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들 (beautiful, tall 등)에 대한 형상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cf. 『프로메네데스』 130b-c.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지 않는 한 손가락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당장 엄지손가락과 비교하기만 해도 short라는 정체성은 잃게 된다. 플라톤은 정체성 유지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손가락’과 ‘short’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기준으로 ‘사람’과 ‘tall’도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정체성 유지의 안정성이라는 기준이 플라톤에서 명사(적 존재)와 형용사(적 존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형성된 철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실체를 명사적 존재라고 하고 속성을 형용사적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파이돈』에는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102b5-6), 혹은 ‘심미아스가 가지고 있는 큼’(102c2)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모르긴 해도 이 논의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형용사는 속성을 나타낸다는 철학적 상식이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을 심미아스가 갖는 속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형용사적 존재는 속성이고 명사적 존재는 실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실체-속성 형이상학의 기반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하는 것은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이 심미아스의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라면, 플라톤이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이 tall이라는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큼 자체만 결코 동시에 tall이면서 small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큼도 결코 small이 덧붙여지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 samll이 다가오면 피해서 자리를 내주거나 소멸한다”(102d6-e2)고 이야기한다.<sup>57)</sup>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은 소멸할 가능성을

57) 여기에서 ‘큼 자체’나 ‘우리 안에 있는 큼’을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는 형용사 형태인 ‘mega(tall)’가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추상명사인 ‘megethos(tallness)’를 사용한다. 2장에서 “아름다움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은 주어가 명사이고 술어가 형용사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서술 문장이 아니라고 했던 우리의 기준에 따르면, “Tallness itself is tall”이나 “Tallness in us is tall”이라는 문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서술 문장이 아니겠다. 하지만 형용사도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하고 나면, 이러한 문장들도 일반적인 자기 서술 문장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플라톤적 형상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적어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tall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이다. 소크라테스는 곧이어서 눈은 결코 hot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불은 결코 cold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추가한다(103d5-12). 우리의 기준에서 ‘tall’이나 ‘hot’은 형용사이지만, 정체성의 안정적 유지라는 기준에서는 ‘tall’이나 ‘hot’이 심미아스나 난로에 적용될 때는 형용사적이고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이나 불에 적용될 때는 명사적이라고 하겠다.

품사 구분의 측면에서는, 주어진 이름이 명사든 형용사든 품사가 고정되어야 하겠다. 플라톤식 안정성 기준으로는 동일한 이름에 대해 일률적으로 그것이 명사적 이름이라거나 형용사적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이름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이름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정체성 유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들었던 예에서 “그 아이는 완전히 손흥민이던데”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흥민을 닮은 양상을 보이는 한에서 별명으로 갖는 것이겠다. 같은 이름이라도 그것이 실명으로 사용되는지와 별명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그 대상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비를 플라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각각의 형상들이 있으며, 다른 것들은 이것들에 참여해서 바로 이것들을 따라부르는 이름 autōn toutōn tēn epōnumian을 갖게 된다”(102b1-2)고 이야기한다. 심미아스가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tall’이라는 이름은 ‘따라부르는 이름 epōnumia’이다.

플라톤은 형상에의 참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일반 사물들이 정확하게 어떤 조건에서 따라부르는 이름을 갖게 되는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지만,<sup>58)</sup> 『파이돈』의 맥락에서

58) 거칠게 말하면, 『파르메니데스』에서 제기되는 질문들 전체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 130e5-6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소

심미아스가 큼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과 심미아스가 자신 안에 큼을 가지는 것, 그리고 심미아스가 'tall'이라는 따라부르는 이름 *epōnumia*을 갖게 되는 것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도 살펴볼 수 있겠다. Norio Fujisawa는 『파이돈』 100c-101c와 102b-c로부터 “‘x가 F이다’ (혹은 ‘x가 형상  $\Phi$ 를 따라부르는 이름을 갖는다’)는 x가 F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x가 F인 것, 혹은 x가 F를 가지는 것은 x가 형상  $\Phi$ 에 참여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59)</sup> ‘x가 형상  $\Phi$ 에 참여한다’와 ‘x가 F를 가진다’를 동의어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sup>60)</sup> 이들에 반대해서 후지사와는 x가 형상  $\Phi$ 에 참여하기 때문에 F를 가진다면 양자가 동의어로 여겨질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지사와가 언급하는 구절들에서 ‘x가 F이다’(혹은 ‘x가  $\Phi$ 를 따라부르는 이름을 갖는다’)가 ‘x가 F를 가진다’는 의미라는 논의는 없고, 오히려 “심미아스가 소크라테스보다 큰 것은 그가 마침 가지고 있는 큼 때문”(102c1-2)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즉, “x가 F를 가지기 때문에 x가 F이다”라는 논의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후지사와 자신이 제시한 논리에 따라, 양자는 동의어가 될 수 없다.

후지사와는 플라톤의 형상을 일종의 속성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형이상학적 틀을 가지고 플라톤을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며,<sup>61)</sup> 우리는 그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

크라테스에게 “형상들이 있으며, 다른 것들은 그것들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따라부르는 이름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묻는 것은 『파이돈』 102b1-2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플라톤에서 ‘따라부르는 이름 *epōnumia*’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로 Bestor (1978)를 참고할 수 있다.

59) Fujisawa (1974), p. 35.

60) 예컨대, Mills (1968), pp. 168-169, Wedberg (1971), pp. 38-41. 참고로 밀스는 플라톤이 일반술어도 이름으로 간주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웨드버그는 플라톤이 형상의 자기 서술을 승인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Mills (1968), p. 169; Wedberg (1971), pp. 41-44.

61) Fujisawa (1974), p. 38.

후지사와 자신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들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다. 만약 (형상이 아닌) F가 속성이라면, ‘x가 F를 가진다’와 ‘x가 F이다’를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후지사와는 ‘x가 F이다’라는 문장에서 F는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양자가 동의어가 아님을 시사하는 텍스트의 대목들에 주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편견 없이 『파이돈』의 논의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면, 심미아스가 ‘tall’이라는 따라부르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두 종류의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심미아스는 큼의 형상에 참여함으로써 ‘tall’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이것이 소위 ‘안전한 설명’이다(100d-e). 다른 한편, 심미아스는 자신 안에 (작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큼을 가짐으로써 ‘tall’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세련된 설명’의 단초가 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소크라테스는 몸이 hot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유로, 몸이 뜨거움의 형상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안전한 설명과 더불어, 몸 안에 (차가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세련된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105b-c). 큼의 형상이나 뜨거움의 형상이 tall이나 hot이라는 정체성을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에서) 갖는다는 사실은 안전한 설명의 기초이다. 그리고 심미아스 안의 큼이나 불이 (각각이 존재하는 한) tall이나 hot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세련된 설명의 기초이다. 세련된 설명이란, 그 자체로는 tall이나 hot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심미아스나 몸이, tall이나 hot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심미아스 안의 큼이나 불을 자신 안에 가짐으로써 tall이나 hot의 정체성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tall’이나 ‘hot’이라는 따라부르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큼의 이데아는 tall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tall 자체’라는 이름을 갖는다. 심미아스 안에 있는 큼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tall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tall’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그리고 심미아스는, 자신



안에 큼을 가지고 있는 한, tall이라는 정체성을 나누어 가지며, ‘tall’이라는 따라부르는 이름을 갖는다.

## VI. 나가는 말

형상의 자기 서술을 정체성 진술로 파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큼 자체는 큰 것인가?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가 형용사는 속성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해서라고 한다면, 명사 술어를 가지고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형상은 사람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플라톤 자신도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다.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졌고, 또 아카데미의 구성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던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적인 형상을 거부하고 실체-속성 형이상학을 고안해낸 데에도 이런 맥락이 있었을 것 같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승리한 형이상학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수되었지만, 아카데미의 다른 구성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했던 것 같기도 하다. 논란이 매우 많은 주제이지만, 플라톤의 후기 철학이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일이다. 다만, “사람의 형상이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묻는 질문인지는 우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형상이 사람이라면 그는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으며 잠은 몇 시간 자는지 등을 묻는 것은, 형상과 일반 사물들 사이의 존재론적 지위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 133d-e에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누군가의 주인이나 노예라면, 그는 ‘주인으로 있는 주인 자체의(*autou despotou, ho esti despotēs*)’ 노예가 아니고 ‘노예로

있는 노예 자체'의 노예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소위 '두-세계론'이다. "사람의 형상이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사람의 형상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 반면에 이 질문이 사람의 형상이 형상계의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라면, 역시 당연히 그렇다. 플라톤은 두-세계론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으며, 그 극복의 노력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다. 하지만 형상의 자기 서술과 관련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해서, 자기 서술을 정체성 진술로 파악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훈 (2012), 「고대 그리스어 ‘einai’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 비정언적 존재개념으로  
서의 ‘있음’과 ‘einai」, 『서양고전학연구』, 48: 77-115.
- 아리스토텔레스, 김진성 역 (2005),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명제론』, 서울: 이제이  
북스.
- 플라톤, 강성훈 역 (2021), 『프로타고라스』, 파주: 아카넷.
- \_\_\_\_\_, 김인곤, 이기백 역 (2021), 『크라틸로스』, 파주: 아카넷.
- \_\_\_\_\_, 전현상 역 (2020), 『파이돈』, 파주: 아카넷.
- \_\_\_\_\_, 정준영 역 (2022), 『테아이테토스』, 파주: 아카넷.
- Allen, R. E. (1959), “Forms and Standards”, *The Philosophical Quarterly*, 9: 164-167.
- \_\_\_\_\_ [1960] (1965), “Participation and Predication in Plato’s Middle Dialogues”,  
in R. E. Allen (ed.),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pp. 43-6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Originally in *The Philosophical Review*, 1960).
- \_\_\_\_\_ (ed.) (1965),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Apolloni, David (2011), *The Self-Predication Assumption in Plato*, Lanham: Lexington  
Books.
- Barney, Rachel (2001), *Names and Nature in Plato’s Cratylus*, London: Routledge.
- Baxter, Timothy M. S. (1992), *The Cratylus: Plato’s Critique of Naming*, Leiden: Brill.
- Bekker, Immanuel (1816), *Anecdota Graeca*, vol. 2, Berlin: G. Reimer.
- Bestor, Thomos W. (1978), “Common Properties and Eponymy in Plato”, *The Philosophical  
Quarterly* 28: 189-207.
- Bhat, D. N. S (1994), *The Adjectival Category: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nd Identif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Cherniss, H. F. [1957] (1965), “The Relation of the Timaeus to Plato’s Later Dialogues”,  
in R. E. Allen (ed.),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pp. 339-398,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Originally in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957).
- Clegg, Jerry S. (1973), “Self-Predication and Linguistic Reference in Plato’s Theory

- of the Forms”, *Phronesis*, 18: 26-43.
- Conford, F. M. (1939), *Plato and Parmenides*, London: Kegan Paul.
- Davidson, Thomas (1874), “The Grammar of Dionysios Thrax”, *The Journal of Speculative Philosophy*, 8: 326-339.
- Dorandi, Tiziano, (ed.) (2013), *Diogenes Laertius: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D.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ck, Job van (2008), “Self-Predication and Being the Aitia of Things”, *Ancient Philosophy*, 28: 105-124.
- Frede, Michael (1967), *Prädikation und Existenzaussage, Hypomnemata 1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Fujisawa, Norio (1974), “Ekhein, Metekhein, and Idioms of ‘Paradeigmatism’ in Plato’s Theory of Forms”, *Phronesis* 19, 1: 30-58.
- Geach, P. T. [1956] (1965), “The Third Man Again”, in R. E. Allen (ed.),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pp. 265-278,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Originally in *The Philosophical Review*, 1956).
- Givón, Talmy (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 1, (revised ed.),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Hansen, Magnus Pharao (2011), “Adjectives in Hueyapan Nahuatl: Do they exist? And if they do what kind of adjectives are they?”, *Kans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2: 8-19.
- Heinaman, Robert (1989), “Self-Predication in Plato’s Middle Dialogues”, *Phronesis*, 34: 56-79.
- Kraut, Richard, (ed.) (1992), *The Cambridge Companion to Pla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colm, John (1991), *Plato on the Self-Predication of Forms: Early and Middle Dialog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nn, Wolfgang (2000), *The Discovery of Things: Aristotle’s Categories & Their Contex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tes, Benson (1979), “Identity and Predication in Plato”, *Phronesis* 24, 3: 211-229.
- Meinwald, Constance C. (1992), “Good-bye to the Third Man”, in Kraut (1992): 365-396.
- Mills, K. W. (1968), “Some Aspects of Plato’s Theory of Forms: *Timaeus* 49c ff”, *Phronesis*, 13: 145-170.
- Nehamas, Alexander (1979), “Self-Predication and Plato’s Theory of Forms”, *American*

- Philosophical Quarterly*, 16: 93-103.
- \_\_\_\_\_ (1982), "Participation and Predication in Plato's Later Thought", *Review of Metaphysics*, 36: 343-374.
- Peterson, Sandra, "A Reasonable Self-Predication Premise for the Third Man Argument", *The Philosophical Review*, 1973: 451-470.
- Rosenthal, Saul (2011), *Plato's Explanatory Predication*,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Sellars, Wilfrid (1955), "Vlastos and 'The Third Man'", *The Philosophical Review* 64, 3: 405-437.
- Taylor, A. E. (1916), "Parmenides, Zeno, and Socrate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ew Series 16; 234-289.
- Vlastos, Gregory [1954] (1965), "The Third Man Argument in the Parmenides", in R. E. Allen (ed.),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pp. 231-263,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Originally in *The Philosophical Review*, 1954).
- \_\_\_\_\_ [1956] (1965), "Postscript to the Third Man: a Reply to Mr. Geach", in R. E. Allen (ed.),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pp. 279-291,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Originally in *The Philosophical Review*, 1956).
- \_\_\_\_\_ [1972] (1981), "The Unity of the Virtues in the Protagoras", in Gregory Vlastos, *Platonic Studies*, 2nd ed., pp. 221-26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Originally in *Review of Metaphysics*, 1972).
- \_\_\_\_\_ (1981), *Platonic Studies*,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Wedberg, A (1971), "The Theory of Ideas", in G. Vlastos (ed.), *Plato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1: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New York: Macmillan; 28-52.
- Wetzer, Harrie (1992), "'Nouny' and 'Verby' Adjectivals: a Typology of Predicative Adjectival Constructions", in Michel Kefer and Johan van der Auwera (eds.), *Meaning and Grammar: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Berlin: De Gruyter; 223-262.
- Whitaker, C. W. A. (1996), *Aristotle's De Interpretatio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How Should We Understand Self-Predication in Plato?

Kang, Sung-Hoon

Ever since Gregory Vlastos introduced the term ‘self-predication’ in 1954, there have been ample discussions concerning how we should understand self-predication in Plato. Previous studies, however, usually deal with the issue without considering Plato’s conception of predication in general. In consequence, they have not paid a sufficient attention to the fact that Plato regards nouns and adjectives together as names (onomata). In particular, it has been neglected that adjectives in the predicate position as well as those in the subject position are regarded as names. But this fact proves to be crucial in understanding Plato’s views on predication in general.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designating an entity, a name may have a function of expressing a (partial) identity of the designated entity. Plato’s theory of predication takes a full advantage of that function. When we pay attention to this feature, we can see that self-predication in Plato is predication that expresses the identity (or ousia) of the subject.

[Key Words] Plato, Self-Predication, a Theory of Predication without Predicates, Adjectival Names, Identifying Statements

논문 투고일: 2023. 03. 15

심사 완료일: 2023. 04. 19

게재 확정일: 2023. 04. 19